

## 신·편입 지원자 추이 및 2025학년도 특성 분석

이은경(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래원격교육연구원)

### 목 차

1. 연구 개요
2. 분석 자료 및 방법
3. 방송대 신·편입 지원자 변화 - 학교 관련
4. 방송대 신·편입 지원자 변화 - 개인배경 관련
5. 요약 및 소결

### 1. 연구 개요

- 2025학년도 신·편입 지원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학생 지원 변화와 향후 학생 유치에 대한 통찰을 얻고자 함. 입시-지원-합격-등록의 과정을 거친 입학생뿐만 아니라 지원자 수준에서 보다 넓게 방송대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 변화를 가늠하고자 함
- 팬데믹 기간을 지나고 2022년 이후 2024년까지 지원자 및 등록자 수가 다소 증가하였음. 2025학년도 방송대 신·편입 지원자는 총 58,160명으로, 전년(2024학년도) 대비 2.8% 감소하였음. 2025학년도 입시 결과에서, 전년 대비 **지원자 수는 감소**하였으나 전년대비 **등록자 수는 증가**하여, 지원자 중 최종 등록까지 가는 비율이 상승하면서 등록자 수가 증가하였음
- 지원자의 70.6%가 최종 등록으로 이어졌으며, 전형 과정에서 7.1%는 지원서 작성만, 2.5%는 전형료 결제까지만, 12.2%는 합격 후 미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음. 지원 단계별 이탈률 분석 결과, **지원자 모집-등록 간의 전환율이 7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전년(68.7%) 대비 소폭 향상**되었음
- 이와 같이 방송대 입학 과정에서 지원서를 제출하고, 이러한 제출자 중 서

서류접수를 완료하고, 그 중 일부가 또 합격자와 등록자로 추려지게 됨. 방송대 입학의 첫 단계인 지원서 제출을 기준으로 지원자를 분석함으로써, 방송대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본 사람까지 포괄하여 지원자의 경향과 변화를 파악하고자 함

- 전년 대비, 2025학년도 지원자의 평균 연령이 낮아졌고, 1학년 신입 지원자는 감소하고, 3학년 편입 지원자는 증가하였음. 지원자의 지역대학 소속이 수도권인 비율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음
- 방송대가 처한 교내외적 변화 속에서 방송대 지원자들의 특징과 이제까지의 추이를 분석하여, 지원자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음. 팬데믹을 경험하고 방송대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사람들의 특성과 그 변화 흐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더 많은 잠재적인 입학자원들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 2. 분석 자료 및 방법

- 2025학년도 1학기 및 2학기 신·편입 지원자 58,160명(1학기 41,659명, 2학기 16,501명)의 데이터를 정보화본부에서 받아 분석하였음. 데이터클리닝 과정에서, 단일 회차 내 다중 지원자는 하나의 지원 기록만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하였음
- 본 자료와 분석은 방송대에 지원하는 사람들의 경향 분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서 제출자를 지원자로 상정하였음. 서류접수 완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자 통계의 수치와 차이를 보일 수 있음
- 2016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10년 간의 지원자들의 변화를 방송대 지원자들의 학교관련 정보(지원 학기, 학과, 지역대학, 입학유형 등)와 개인배경 정보(성, 연령 등)에 따라 분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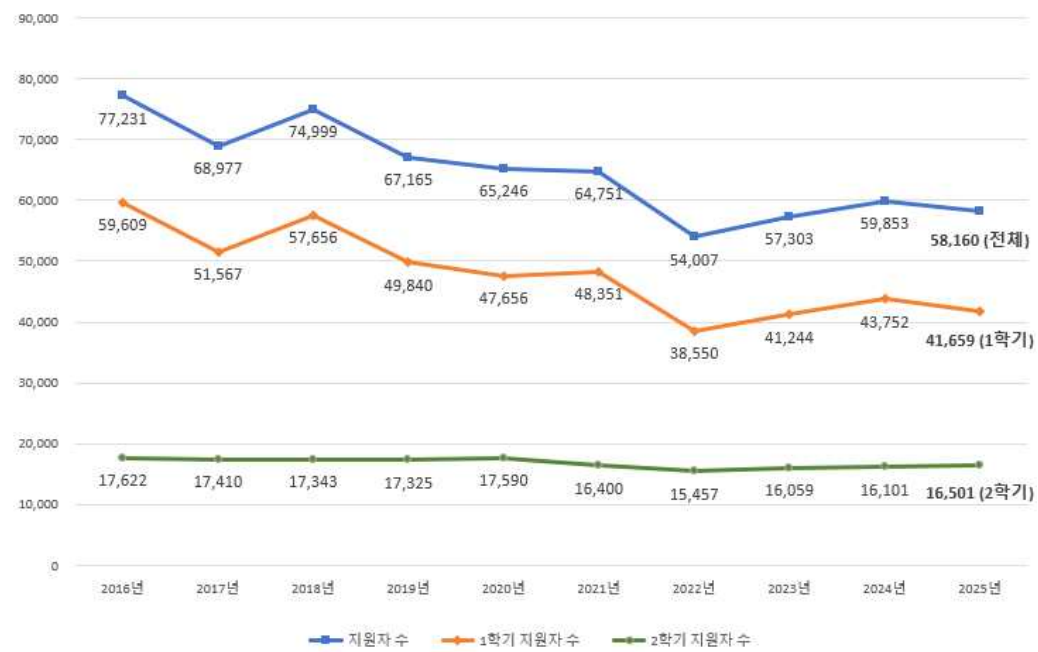
## 3. 방송대 신·편입 지원자 변화 - 학교 관련

### 학년도별 방송대 지원자 수 추이

- 2025학년도 방송대 신·편입 지원자는 모두 58,160명이었으며, 전년대비

2.8% 감소하였음. 1학기 지원자는 41,659명으로 2025학년도 전체 지원자의 71.6%에 해당하였으며, 2학기 지원자는 16,501명으로 전체 지원자의 28.4%에 해당함

- 2016학년도 이후 지속된 지원자 감소세가 2022학년도에 멈추고 2022-2024학년도에 지원자가 증가하였으나, 2025학년도에는 하락세로 다시 전환되었음. 1학기 지원자는 41,659명으로 전년 대비 4.8% 감소했으며, 2학기 지원자는 16,501명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음



[그림 1] 2016-2025학년도 방송대 신·편입 지원자 규모

### □ 신·편입 지원자 수 추이

- 지난 10년 동안의 신·편입생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6학년도부터 방송대 신·편입생 중 신입생의 수는 계속해서 감소세에 있다가 2024학년도에 다소 증가하였음. 이는 사회복지학과 1학년 신입생 입학 신설의 영향으로 해석됨. 2025학년도에는 신입생 지원자는 전년대비 9.6%가 감소하고 편입생 지원자는 0.1%가 증가하였음
- 2016학년도에는 신입생 지원자가 3만 명 이상이었으나, 2022학년도에는 16,380명으로 최저를 기록하였음. 최근 2년 동안 증가했던 신입생 지원자 수는 2025학년도에 다시 감소하여 16,493명이었음



[그림 2] 2016-2025학년도 방송대 신·편입 지원자 규모

- 신입생에 비하여 편입생 지원자의 수는 감소의 정도가 약한 편임. 2017학년도까지는 편입생의 수도 대폭 감소하고 있었으나, 2018학년도부터는 편입생 지원자의 수가 신입생 지원자의 수처럼 감소하지 않고 2022년만을 제외하고는 2025년까지 4만 명 이상으로 유지하였음. 2025학년도 편입생 지원자는 41,667명이었고, 이는 전년대비 0.1% 증가한 것임



[그림 3] 2016-2025 신·편입 학년별 지원자 수의 추이

- 입학학년별로 신·편입 지원자 수의 변화가 [그림 3]에 제시됨. 1학년 신입 지원자의 수가 2022학년도까지 강한 감소세를 나타내다가 2024학년도에는 10.2% 증가하였음. 2학년 편입 지원자는 2015학년도 이래로 조금씩 감소하다가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에 다시 약간 감소하였음. 3학년 편입 지원자는 2017학년도까지는 감소하다가, 2018학년도에 3만 명 대를 회복한 이후 등락은 일부 있으나 2025학년도까지 약 3만5천 명 규모가 유지되었음
- 2025학년도 지원자들을 입학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9.6%)과 2학년(-19.1%)은 감소한 반면 3학년(+4.5%)은 증가하였음. 1학년과 2학년 지원자들은 팬데믹 이후 최근 3년 동안에도 약한 등락을 계속하고 있으나, 3학년 편입 지원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 단과대학별 지원자 수 추이

- 전체적인 지원자 수 변화에 이어 단과대학 및 학과별 지원자 수의 변화를 살펴보았음. 4개의 단과대학(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교육과학대학)이 지원자 수 변화에 있어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음. 2016학년도에서 2025학년도 10년의 기간 동안 가장 변화가 적은 대학은 자연과학대학이고, 가장 큰 변화는 교육과학대학에서 나타남



[그림 4] 2016-2025 단과대학별 지원자 수의 추이

- 2025학년도 신·편입 지원자의 수는 단과대학별로 상이한 흐름을 보였음. 전년 대비 인문과학대학 +2.9%, 사회과학대학 +1.1%, 자연과학대학 -3.1%, 교육과학대학 -14.2%의 증감이 나타났음. 특히 교육과학대학의 지원자 감소(-14.2%)가 두드러졌으며, 이는 유아교육 및 교육학과 지원자 축소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됨

#### □ 학과별 지원자 수 추이

- 2025학년도에는 정원 초과 지원자가 있는 학과에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학과 간 정원이 조정되었고, 교육부의 교원 양성 규모 적정화 추진으로 인하여 유아교육과의 정원이 감소하였음
- 2025학년도 학과별 지원자가 작년 대비 많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학과
  - 증가 학과: 청소년교육복지상담학과(+24%), 생활체육지도과(+11%), 중어중문학과(+11%)
  - 감소 학과: 유아교육과(-31%), 교육학과(-21%), 행정학과(-13%), 농학과(-13%)
- 사회복지학과는 9,899명으로 여전히 단일 최대 규모를 유지하였고, 컴퓨터과학과 통계·데이터학과는 안정적인 지원자 규모를 보였음. 반면, 교육계열과 행정학과, 농학과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냈음
- 2016-2025학년도 기간을 전체적으로 보면, 인문과학대학 전 학과(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중어중문학과, 프랑스언어문화학과, 일본학과)에서 지속적인 감소세가 있었고 2022년부터 감소세가 멈추거나 증가세로 돌아서기도 하였음. 사회과학대학의 경우, 사회복지학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과에서 지속적인 감소세 끝에 2022년 이후 감소세가 멈추거나 증가세가 나타났음. 인문과학대학과 사회과학대학의 일부 학과(중문, 일본, 관광 등)는 관련된 외부 환경의 영향에 따른 등락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자연과학대학의 경우는, 간호학과는 정원 감소로 감소세가 지속되었고, 컴퓨터과학과와 통계·데이터과학과는 2020학년도 이후 학생 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음. 교육과학대학에서 학과별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지원자 규모가 감소세였음. 유사 계열 학과에서는 증감의 영향을 서로 주고 받았음. 생활체육지도과는 개설 후 5년차가 되면서 그 규모가 안정화되고 있음

<표 1> 2016-2025 학과별 지원자 수 및 증감률 추이

	국문	영문	중문	프랑스	일본	법학	행정	경제	경영	무역	미디어	관광
2016	2,151	6,219	4,692	539	2,358	4,370	1,396	854	4,867	944	1,686	1,841
2017	2,144	5,512	3,670	507	2,554	4,405	1,238	773	4,080	756	1,603	1,679
2018	2,108	5,392	3,231	464	3,104	3,891	1,075	844	3,779	820	1,627	1,733
2019	1,884	5,185	2,580	450	2,476	3,528	944	871	3,633	756	2,030	1,602
2020	1,813	4,638	2,254	477	1,607	3,975	952	1,007	3,777	740	2,215	1,421
2021	1,761	3,971	1,693	421	1,463	4,029	840	1,203	4,257	629	2,313	825
2022	1,682	3,306	1,157	390	1,266	3,235	642	861	3,515	477	2,052	664
2023	1,720	3,579	1,142	421	1,589	3,095	625	916	3,683	489	1,808	716
2024	1,745	3,585	1,111	492	2,056	3,090	584	898	3,663	526	1,985	821
2025	1,870	3,590	1,233	446	2,109	3,282	509	882	3,654	528	2,115	728

	국문	영문	중문	프랑스	일본	법학	행정	경제	경영	무역	미디어	관광
2016~2017	0%	-11%	-22%	-6%	8%	1%	-11%	-9%	-16%	-20%	-5%	-9%
2017~2018	-2%	-2%	-12%	-8%	22%	-12%	-13%	9%	-7%	8%	1%	3%
2018~2019	-11%	-4%	-20%	-3%	-20%	-9%	-12%	3%	-4%	-8%	25%	-8%
2019~2020	-4%	-11%	-13%	6%	-35%	13%	1%	16%	4%	-2%	9%	-11%
2020~2021	-3%	-13%	-22%	-12%	-6%	2%	-12%	23%	13%	-15%	5%	-37%
2021~2022	-4%	-17%	-32%	-7%	-13%	-20%	-24%	-28%	-17%	-24%	-11%	-20%
2022~2023	2%	8%	-1%	8%	26%	-4%	-3%	6%	5%	3%	-12%	8%
2023~2024	1%	0%	-3%	17%	29%	0%	-7%	-2%	-1%	8%	10%	15%
2024~2025	7%	0%	11%	-9%	3%	6%	-13%	-2%	0%	0%	7%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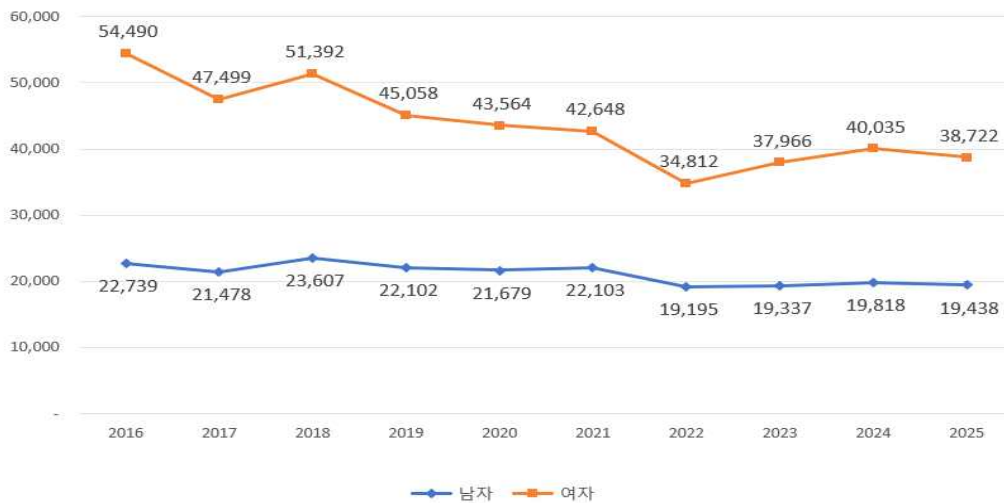
	사회 복지	농학	생활 과학	컴퓨터	통계 데이터	보건 환경	간호	교육	청소 년	유아	문화 교양	생활 체육
2016		3,303	5,266	3,161	1,114	2,029	3,889	5,015	6,321	12,499	2,717	
2017		3,658	5,347	3,454	1,221	1,952	3,360	4,799	4,952	9,022	2,291	
2018	10,588	3,918	4,826	3,873	1,193	1,882	2,659	3,543	4,154	8,069	2,226	
2019	8,898	3,886	4,066	4,110	1,266	1,764	2,064	3,240	3,422	6,682	1,828	
2020	8,815	3,774	4,133	4,563	1,468	2,136	1,771	3,182	3,036	5,671	1,821	
2021	8,679	3,975	3,836	5,302	2,366	2,160	1,574	2,484	2,384	5,282	1,650	1,654
2022	7,311	3,654	3,222	5,425	2,223	1,856	1,153	1,902	1,838	3,667	1,409	1,100
2023	7,220	3,671	3,276	5,871	2,117	1,941	1,037	1,770	1,736	5,729	1,532	1,620
2024	9,797	3,458	3,528	6,278	2,134	1,695	928	1,683	1,350	5,344	1,523	1,579
2025	9,899	3,022	3,854	5,835	2,006	1,900	847	1,328	1,674	3,706	1,390	1,753

	사회 복지	농학	생활 과학	컴퓨터	통계 데이터	보건 환경	간호	교육	청소 년	유아	문화 교양	생활 체육
2016~2017			11%	2%	9%	10%	-4%	-14%	-4%	-22%	-28%	-16%
2017~2018			7%	-10%	12%	-2%	-4%	-21%	-26%	-16%	-11%	-3%
2018~2019	-16%	-1%	-16%	6%	6%	-6%	-22%	-9%	-18%	-17%	-18%	
2019~2020	-1%	-3%	2%	11%	16%	21%	-14%	-2%	-11%	-15%	0%	
2020~2021	-2%	5%	-7%	18%	71%	1%	-10%	-22%	-19%	-6%	-9%	
2021~2022	-16%	-8%	-16%	2%	-6%	-14%	-27%	-23%	-23%	-31%	-15%	-33%
2022~2023	-1%	0%	2%	8%	-5%	5%	-10%	-7%	-6%	56%	9%	47%
2023~2024	36%	-6%	8%	7%	1%	-13%	-11%	-5%	-22%	-7%	-1%	-3%
2024~2025	1%	-13%	9%	-7%	-6%	12%	-9%	-21%	24%	-31%	-9%	11%

#### 4. 방송대 신·편입 지원자 변화 - 개인배경 관련

##### □ 성별 지원자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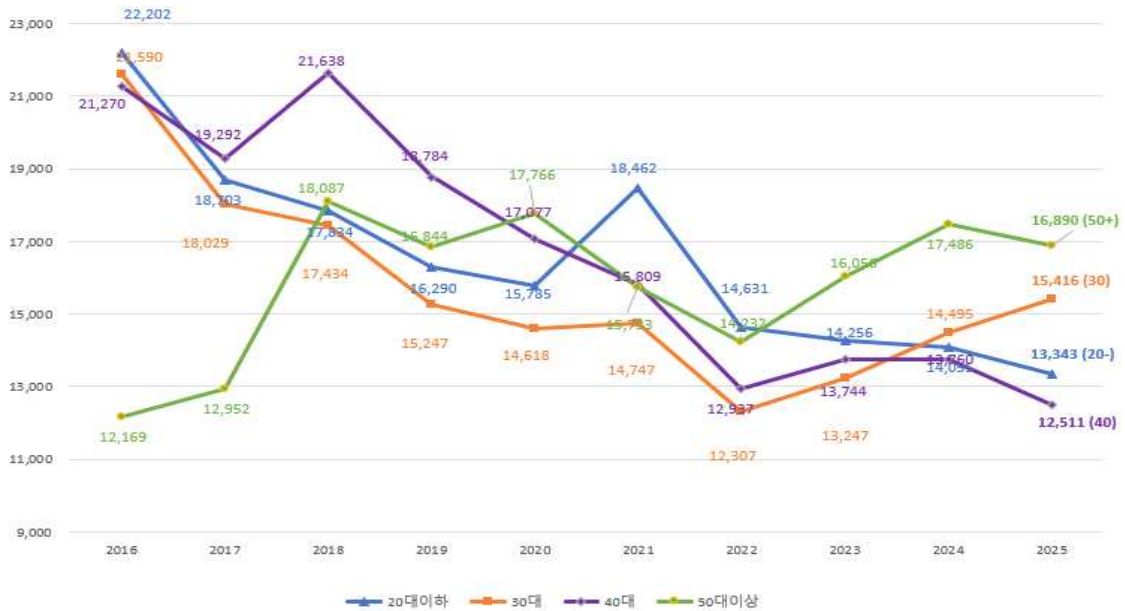
- 성별에 따라 방송대 지원자 수를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지난 10년 동안 최고와 최저 기준으로 남자 지원자 수는 약 4,500명 정도의 차이가 나고 여자 지원자 수는 약 2만 명 정도의 차이를 보임. 남자와 여자 지원자 수 모두 감소하였으나, 감소하는 비율은 여성이 더 높았음. 이에 따라 전체 지원자의 남녀 비율에서 남자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졌음. 2025학년도에는 남성 33.4%, 여성 66.6%로 여성 비율이 전년(66.9%)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음



[그림 5] 2016-2025 성별 지원자 수의 추이

##### □ 연령대별 방송대 지원자 수 추이

- 2025년 지원자 평균 연령 41.2세로 2024년 41.5세보다 0.3세 낮아졌음. 연령대별 네 집단 모두 2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그 중 50대 이상이 비율이 가장 높음. 50대 이상 16,890명 중 60대 이상은 5,325명임(31.5%). 전년도에 비해 30대가 6.4%(921명) 증가함. 이는 중장년층 지원자 기반을 유지되면서, 30대 직장인 학습자층의 재유입이 강화된 것으로 해석됨



[그림 6] 2016-2025 연령대별 지원자 수의 추이

- 연령대에 따른 지원자 수는 지난 10년 동안 연령대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전체적으로 40대는 감소하는 방향이며, 20대도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2021년 코로나 시기에 지원자 수가 증가한 바 있음. 30대는 감소하다가 2022년 저점을 찍고 일부 상승하였음. 50대 이상은 2010년대 후반부터 상승하여 근래 3년 동안은 연령대별 분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 지역별 방송대 지원자 수 추이

- 거주지역에 따라 방송대 지원자의 규모와 비율이 2021학년도에서 2025학년도 사이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확인하였음. 모든 지역에서 2021학년도 대비 2025학년도 지원자의 수가 감소하였고, 상대적으로 덜 감소한 지역(인천)의 학생 수 비율이 높아졌음
- 2025학년도에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원자의 비율이 전체의 64.3%임. 해외거주 지원자 수(820명)가 서울지역대학에 포함되어 있음. 이러한 방송대 지원자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인구 전체의 집중도보다도 좀 더 높은 수준임

<표 2> 2021-2025 지원자의 지역별 규모와 비율 추이

	2021	2022	2023	2024	2025	2021	2022	2023	2024	2025
서울	24,528	20,450	21,405	23,132	22,995	37.9%	37.9%	37.4%	38.6%	39.5%
부산	3,847	3,171	3,455	3,451	3,312	5.9%	5.9%	6.0%	5.8%	5.7%
대구/경북	3,607	3,088	3,207	3,294	3,196	5.6%	5.7%	5.6%	5.5%	5.5%
인천	5,719	4,752	5,131	5,210	5,280	8.8%	8.8%	9.0%	8.7%	9.1%
광주/전남	2,467	2,067	2,250	2,255	2,055	3.8%	3.8%	3.9%	3.8%	3.5%
대전/충남	4,331	3,561	3,814	4,131	3,833	6.7%	6.6%	6.7%	6.9%	6.6%
울산	1,451	1,105	1,287	1,188	1,152	2.2%	2.0%	2.2%	2.0%	2.0%
경기	10,232	8,588	9,214	9,623	9,123	15.8%	15.9%	16.1%	16.1%	15.7%
강원	2,094	1,797	1,874	1,892	1,814	3.2%	3.3%	3.3%	3.2%	3.1%
충북	1,851	1,621	1,698	1,683	1,605	2.9%	3.0%	3.0%	2.8%	2.8%
전북	1,583	1,313	1,378	1,276	1,231	2.4%	2.4%	2.4%	2.1%	2.1%
경남	2,007	1,680	1,727	1,811	1,625	3.1%	3.1%	3.0%	3.0%	2.8%
제주	1,034	814	863	907	939	1.6%	1.5%	1.5%	1.5%	1.6%

□ 외국인 및 해외거주 지원자

- 외국 국적 지원자는 26개국 238명(0.4%)으로, 주요 국가는 중국(98명), 미국(48명), 캐나다(24명) 순이었음. 외국 국적 지원자는 어문 계열 학과와 사회복지학과의 지원이 많았음
- 해외거주 지원자는 820명(1.4%)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등록률은 72.2%로 국내 지원자(68.7%)보다 높게 나타났음. 해외거주자의 다수는 한국 국적(95.1%)이며, 컴퓨터과학과, 영어영문학과, 경영학과 지원이 많았음

5. 요약 및 소결

□ 2025학년도 신·편입생 지원자 규모

- 2025학년도 신·편입생 지원자 수는 58,160명으로 전년대비 2.83% 감소하였음. 학기별로는 1학기 41,659명(-4.8%), 2학기 16,501명(+2.5%)을 기록하였음. 학기별 비율은 1학기 71.6%, 2학기 28.4%로 나타났음

□ 2025학년도 신·편입생 지원자의 학사 관련 특성

- 입학유형별: 신입생은 전년 대비 9.6% 감소, 편입생은 0.1% 소폭 증가

- 하였음. 학년별로는 1학년과 2학년이 감소한 반면, 3학년은 증가하였음
- 단과대학별: 인문과학대학(+2.9%), 사회과학대학(+1.1%)은 증가한 반면, 자연과학대학(-3.1%), 교육과학대학(-14.2%)은 감소하였음
  - 학과별: 청소년교육복지상담학과(+24%), 생활체육지도학과(+11%), 중어중문학과(+11%)의 증가가 두드러졌고, 유아교육과(-31%), 교육학과(-21%), 행정학과(-13%), 농학과(-13%) 등은 감소하였음

#### □ 2025학년도 신·편입생 지원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성별: 여성 66.6%, 남성 33.4%로 여성 비율이 여전히 높음
- 연령대: 50대 이상이 29.0%로 가장 많으며, 연령별 집단 중 30대만 지원자가 증가하였음(6.4%). 연령별 집단들(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이 모두 20% 이상 고르게 분포하였음
- 지역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비율은 64.3%로 전년보다 상승하였음. 특히 서울은 22,995명(39.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 외국인·해외거주: 외국 국적 지원자는 26개국 238명(0.4%)이며, 중국(98명), 미국(48명), 캐나다(24명) 순임. 해외거주 지원자는 820명(1.4%)으로 대부분(95.1%) 한국 국적자임